

#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제한없음(즉시)
문의	국제대학원
	김병진 선임주무관 전화: 880-8507

배포일: 2022.5.27.(금)

## 서울대학교, 호한재단(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및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LTD)와 호주학 분야 발전 협약 체결

- 서울대학교는 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이하 ‘호한재단’), WOODSIDE ENERGY LTD (이하 ‘우드사이드 에너지’)와 호주학 분야 발전을 위한 협약을 2022년 5월 26일(목) 주한 호주대사관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오세정 총장, 국제대학원 박태균 원장, 김태균 대외협력부처장, 호주측에서는 케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호한재단 Peter Coleman 이사장, 우드사이드 에너지 CEO Meg O’ Neill이 참석하였다.
- 호한재단은 1992년 호주 정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 발전을 위한 재단으로 앞으로 3년간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 호주학 관련 교수를 파견할 예정이다.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매년 300,000 호주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본 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와 호주 대학 간의 교원 교류, 공동 학술행사 개최, 교환학생 실시 등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자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와 한국 내 호주학 분야의 기틀을 마련하고 호주학 관련 인적 자원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학생들의 호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향후 호주 기업과 R&D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복잡한 역내 정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호한재단, 서울대학교, 우드사이드 에너지 간 협약은 호주와 대한민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핵심인 상호존중과 인적교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